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전호성 노브스튜디오



서울 녹번동에 자리한 지하 2층, 지상 3층의 본부 건물 앞에 모인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앞줄 오른쪽 끝)와 직원들. 법인 소유인 본부 건물은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한 뒤 2009년에 입주했다.

※ **한국여성의전화**: 1983년 창립. 1987년 가정폭력피해여성 위한 쉼터 개설. 1997년 가정폭력방지특별법 제정. 1998년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 운영. 2006년 제1회 여성인권영 화제 개최. 서울 본부와 전국 25개 지부로 구성, 본부에 21명, 전국에 230명 근무.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등 운영. 아산상, 시민인권상, 시민운동대상, 유관순상 등 수상.



1983년 6월 11일 옥탑방을 빌려서 시작한 한국여성의전화는 단독주택에 보금 자리를 틀기도 했다(1989. 8).

2007년,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여성에게 들은 이야기다. 그 여성과 남편은 세칭 일류대학을 나와 남들이 부러워하는 전문직에 종사했다. 특히 남편은 직장 등 자신의 활동무대에서 부드러운 미소와 훌륭한 매너로 ‘젠들맨’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처신은 달랐다. 신혼 초부터 걸핏하면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았다. 폭력의 강도는 점점 심해져서 손바닥으로 시작한 매질이 주먹과 발길질로 바뀌었고, 야구방망이라는 흉기를 들기도 했다. 그 여성의 입에는 자연 치아가 몇 개 남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자녀들 때문이었을까, 그 여성은 30년 가까운 결혼생활 대부분을 맞고 살면서도 이혼을 선택하지 못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공포에 휩싸이던 그녀는 대신 호신술을 배웠다. 몇 년간의 수련으로 실력이 향상된 어느 날 그녀는 얼굴로 날아오던 남편의 주먹을 막으며 “앞으론 맞지 않고 살겠다”고 선언했고, 움찔한 남편은 그 후 몇 차례의 폭력 시도가 좌절되고서야 이유 없는 주먹질을 거두었다.

“최소한의 사람다움 보장을 위해”

1983년 6월 11일 한국여성의전화 개원식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박완서 소설가는 축사를 통해 “여성이 집에서 부당하게 겪는 아픔은 여자 팔자라는 이름으로 은폐돼왔고, 남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몫쓸 짓이라도 모르는 척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졌다”면서 “그러는 사이에 여성이 최소한의 사람다움도 보장받을 수 없는 가정이 수 없이 늘어났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박완

서 소설가는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억울한 박해를 받는 여성들에게 전화라는 통신수단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함께 나누려는 여성의전화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여성의전화가 문을 연 지 34년이 지났어도 앞에서 든 ‘웃픈’ 예처럼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비극적인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2013년 5월에는 남편으로부터 끊임없이 폭력을 당하던 김영희(가명) 씨가 목이 졸려 살해되면서 기나긴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같은 해 9월에는 25년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윤필정(가명) 씨가 자신과 두 자녀의 안전을 위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벌어졌다. 30여 년간 잔인한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의 폭력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절망감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을 베개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정희정(가명) 씨 사건은 2014년 10월에 일어났다. 여성의전화는 남편을 사망케 한 두 사건을 ‘정당방위 사건’으로 명명하고 여론화하는 한편 법률지원팀을 꾸려 적극 대응하면서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고통받는 여성과 함께하겠다”

1983년 여성의전화가 ‘고통 받는 여성과 함께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처음 문을 연 곳은 서울 중구청 근처에 자리한 다방 건물의 옥탑방이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어떤 학대를 당해도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던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의전화’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미국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이화수 박사였다. “미국에 가보니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여성의전화’가 있더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다.

시대적 흐름도 맞았다. 1977년 이화여대에 국내 최초로 여성학이 개설됐고, 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운영한 주부아카데미에서도 수료생이 많이 배출됐다. 수료생들에게 할 일이 필요하던 시점에 이화수·이계경·이현숙·김희선 4인이 여성의전화 창립 깃발을 들었다. 창립 첫째 운영위원장은 이화수 박사가, 총무는 이계경 씨가 맡았다(이계경·김희선 씨는 훗날 국회의원을 지냈다).

개원식 이틀 뒤인 6월 13일 정식으로 전화가 개통됐고, ‘매 맞는 아내들을 위해 전화상담하는 곳이 생겼다’고 알려지자 전화가 폭주했다. 1983년 첫해에 전화 한 대로 약 4천 건의 상담전화를 받았다. 상담전화를 개통하고, 상담원 교육을 시작한 여성의전화는 개원 직후에 우리나라 최초로 ‘아내 구타’에 관한 실



2016년 이른바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에서 여성의전화는 여러 시민단체와 공동대응했다. 성명서를 읽는 고미경 여성 의전화 대표(2016. 7. 27).

대조사를 벌였다. 당시 서울지역 708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2%의 여성이 맞은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조사를 통해 '아내 구타'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다.

1987년에는 국내 최초로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긴급피난처인 '쉼터'를 개설했다. 3월 14일 사무실 일부를 개조하여 시작한 뒤 6월에 전세방으로 독립한 그곳을 그때는 마땅히 부를 이름이 없었다. 여성의전화 활동가들은 'shelter'(피난처)와 발음이 비슷하고 쉴 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쉼터'로 명명했다. 쉼터는 현재 여성의전화 본부와 지부에서 12곳을 운영 중이며, 자녀와 함께 입소해 6~9개월 이용할 수 있다. 쉼터 이용 여성은 30~40대가 50% 이상이고, 하루 평균 8명, 연평균 3천 명이 이용했다. 이 중 절반은 귀가를, 나머지는 자립을 선택했다. 여성의전화 쉼터의 영향을 받아 NGO와 종교법인 등에서도 쉼터를 설립, 현재 67곳으로 늘어났다.

여성 인권운동계의 싱크탱크

창립 당시부터 여성폭력 관련법의 제정을 절감한 여성의전화는 1991년 4월 18일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고, 마침내 1993년 정기국회에서 '성폭력특별법'이 통과됐다. 여성의전화는 처음부터 가정폭력을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법 제정 과정에서 가정폭력이 제외되어 '가정폭력방지법'이 별도의 법으로 제정되도록 모든 역

량을 기울였다.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의전화 가 없었다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집안일로만 여겨지던 가정폭력이 사회범죄로 정의될 수 있었다.

1998년부터는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을 운영했다.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1366을 개설해 2002년까지 운영하다가 정부에 운영을 넘김으로써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긴급전화화 제도화되는 발판을 놓았다. 1366은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위탁운영 중이다.

1998년 9월에는 당시 일혼이던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면서 '황혼 이혼'이라는 용어를 한국 사회에 처음 등장시켰고, 이혼 과정에서 여성들이 부딪치는 정당한 재산권 확보를 위해 1999년 '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도 시작했다.

이 외에도 여성의전화는 미래 세대의 성교육을 위해 개최한 '딸들을 위한 캠프'를 경제와 인권 교육을 위한 캠프로 발전시켰고,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등 가정폭력 사례를 담은 단행본 13권을 출간했으며, 2006년부터 여성폭력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성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에 11회를 맞은 영화제는 지난 9월 20일 개막해 5일간 진행됐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시킴으로써 여성 인권의 개념을 확장하고 확립시킨 여성의전화는 시대 변화에 맞춰 스토킹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긴급피난처인 쉼터는 30년 동안 9만1천여 명이 이용했다(위). 본부 및 전국 지부에 설치된 28개소의 상담소에서 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가 91만7천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아래).

범죄처벌법을 발의하고, 데이트·디지털 폭력 관련법안을 준비하는 등 여성 인권운동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6년에 벌어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동대응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보호’를 넘어 ‘자립’으로

1994년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여성의전화는 서울의 본부와 전국 25개 지부로 구성됐으며, 산하기구로 가정폭력상담소 14개소와 성폭력상담소 11개소, 통합상담소 2개소, 성매매상담소 1개소, 쉼터 12개소를 운영 중이다.

직원은 사무처에 21명, 전국적으로 230명이 근무하며, 25개 지부를 포함한 전국 회원은 1만 명이다. 서울 본부의 회원은 1천 5백 명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2대 8이고, 20대가 18%, 30~40대가 52%를 차지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후원금(월 1만~2만 원)을 내는 회원은 1천5백여 명이며, 자원봉사자는 1천여

명인데 회원과 자원봉사자는 교육과 상담, 온라인을 통해 유입된다.

전화상담은 여성의전화의 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가 담당하며, 현재 379명(본부 30여 명)이 활동 중이다. 2016년에는 3만2천 건을 상담했다.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은 매년 1~2회, 성폭력상담원 교육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며, 각각 100시간과 64시간의 교육 이수 후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매년 30~40명이 수강하는 두 강좌는 유료(35만원)로 지금까지 각각 49기와 20기의 교육을 마쳤으며, 2천여 명이 상담원 양성교육을 수료했다. 무료로 진행되는 면접상담원 교육은 300시간 이상 전화상담 경력이 있는 봉사자가 2회의 별도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한다. 2007년부터는 폭력예방강사 양성교육을 개설하여 수료자 중 10명이 학교 및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이사회는 모두 16명으로, 공동대표 3명과 이사 13명으로 구성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공동대표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현재 고미경(50) 상임대표와 손명희 전 강화여성의전화 대표, 오영란 전 부산여성의전화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고미경 대표는 여성부 성폭력·가정폭력전문가위원회 위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실행이사 등을 역임했다. 고미경 대표 직전의 정춘숙 전 상임대표(2009~2015년)는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고미경 대표는 “이번 아산상 수상을 계기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이 여성이라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고, 피해자 보호보다는 인권 보장이라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성폭력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지만, 폭력 없는 세상과 평등한 사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낸 고 대표는 폭력 피해여성의 보호를 넘어 자립을 위한 ‘자립센터’ 건립을 구상 중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본부 및 지부에 설치된 28개소의 상담소에서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가정폭력과 성폭력·성매매 상담을 받는다(서울본부: 가정폭력 02-2263-6464, 성폭력 02-2263-6465). 이메일(counsel@hotline.or.kr)로도 상담이 이루어진다. 면접상담은 전화상담을 통해 예약 후 가능하며, 법률상담도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